

SKT ESG 성과 금리우대로 입증…

녹색금융으로 친환경 ICT 키운다

**-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그룹 ‘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’ 통해 2천억원 차입**

**- 국제 자금시장 환경·사회문제 관심 높아지며 ESG 우수 기업 자금 조달에 유리**

**- “선제적 ESG 추구가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지속 강화할 것”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  |

**[2021. 6. 2]**

SK텔레콤이 세계적 금융기관으로부터 ESG 우수기업 우대 대출을 받아 온실가스 저감 노력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 등 ESG 경영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.

SK텔레콤(대표이사 박정호, [www.sktelecom.com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(의장 피터 세아, www.dbs.com.sg)의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(ESG-linked loan)을 통해 3년 만기 자금 2천억원을 조달했다고 2일 밝혔다.

SKT는 국내 1위 통신사로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, 최상위권 신용등급(AAA)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. 계약에는 향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 제고 등 상호 합의한 ESG 성과를 통해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하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도 포함됐다.

이번 계약은 환경·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SKT의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외에도 ESG 성과가 사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.

SKT는 이번 계약으로 통상적인 회사채 발행 대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, 기업의 높은 ESG 성과가 우대금리 적용 등 경영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입증했다. ESG 채권 발행 외에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 등 다양한 녹색금융\*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.

\* 환경 개선과 관련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생성장을 지원하는 활동

최근 글로벌 자금시장에서는 ESG 우수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제공에 유리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. DBS그룹의 경우, SKT 외에도 글로벌 통신사인 싱텔과 싱가포르 최대 부동산 기업 CDL(City Development Limited) 등 산업별 선도기업에 ESG 성과 창출과 연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.

SKT는 DBS 그룹으로부터 유치한 차입금을 친환경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기업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.

SKT는 3G와 LTE 장비 통합·업그레이드로 약 53%의 전력 사용량 절감 효과를 내는 ‘싱글랜 기술’을 적용해 망 구축 확대에 따른 전력 증가 규모를 최소화하고, 한국전력공사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인증에 관한 ‘녹색프리미엄’ 계약을 체결하는 등 ICT 인프라 기반의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.

윤풍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1센터장은 “환경 및 사회문제 개선 의지를 가진 기업들에 대한 국내외 자금시장의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”며, “선제적인 ESG 추구 노력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|  |
| --- |
| ※ 사진설명SK텔레콤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(DBS Bank)의 ESG 경영 연계 기업대출(ESG-linked loan)을 통해 3년 만기 자금 2천억원을 조달해 온실가스 저감 노력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 등 ESG 경영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. |

**▶ 관련 문의 : PR실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 (02-6100-3854)**

**<끝>**